

Internship Newsletter

2008 IBM 동계 인턴 이야기

Internship Newsletter
INTERNS, BE MBITI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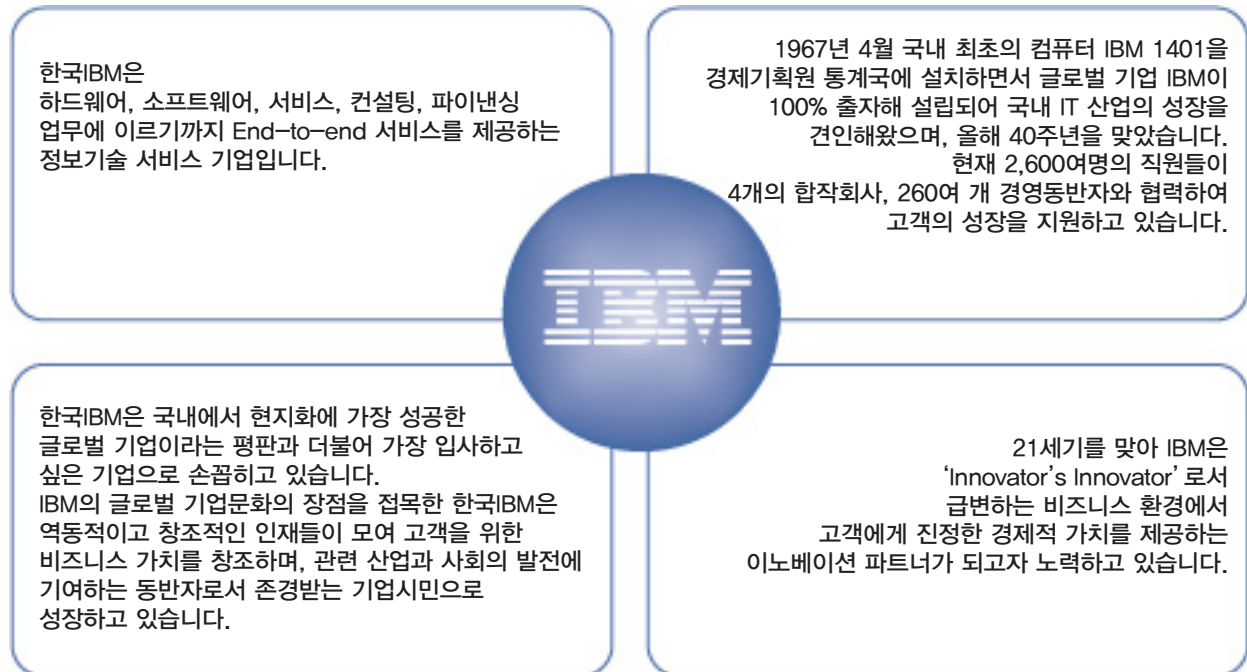
CONTENTS

IBM 소개
인턴들의 부서 소개 및 소감
IBM 인턴 및 공채 정보
인턴 선배 이야기
인턴 생활 엿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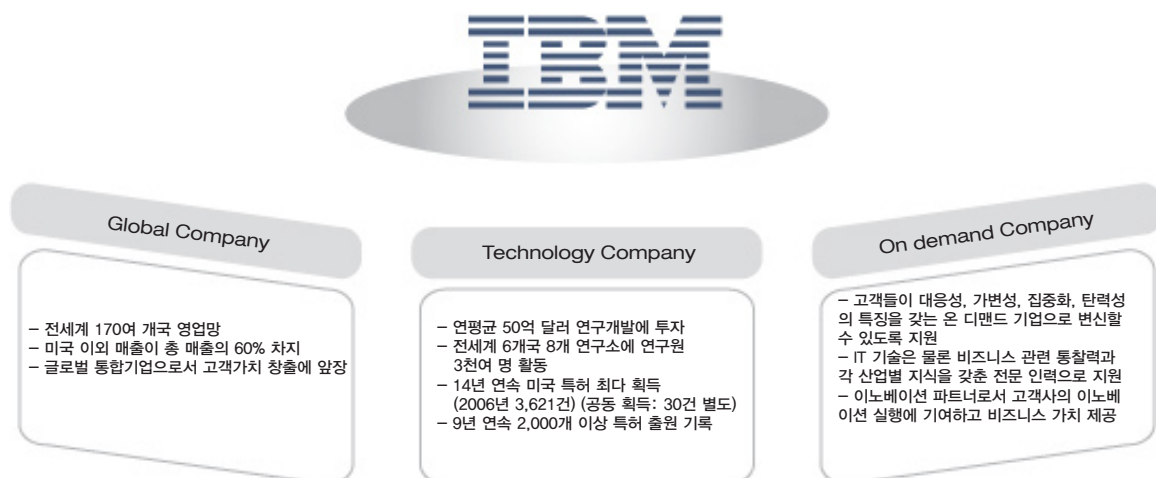
EDITORS

정보라 / 남효주 / 유지송
이수현 / 박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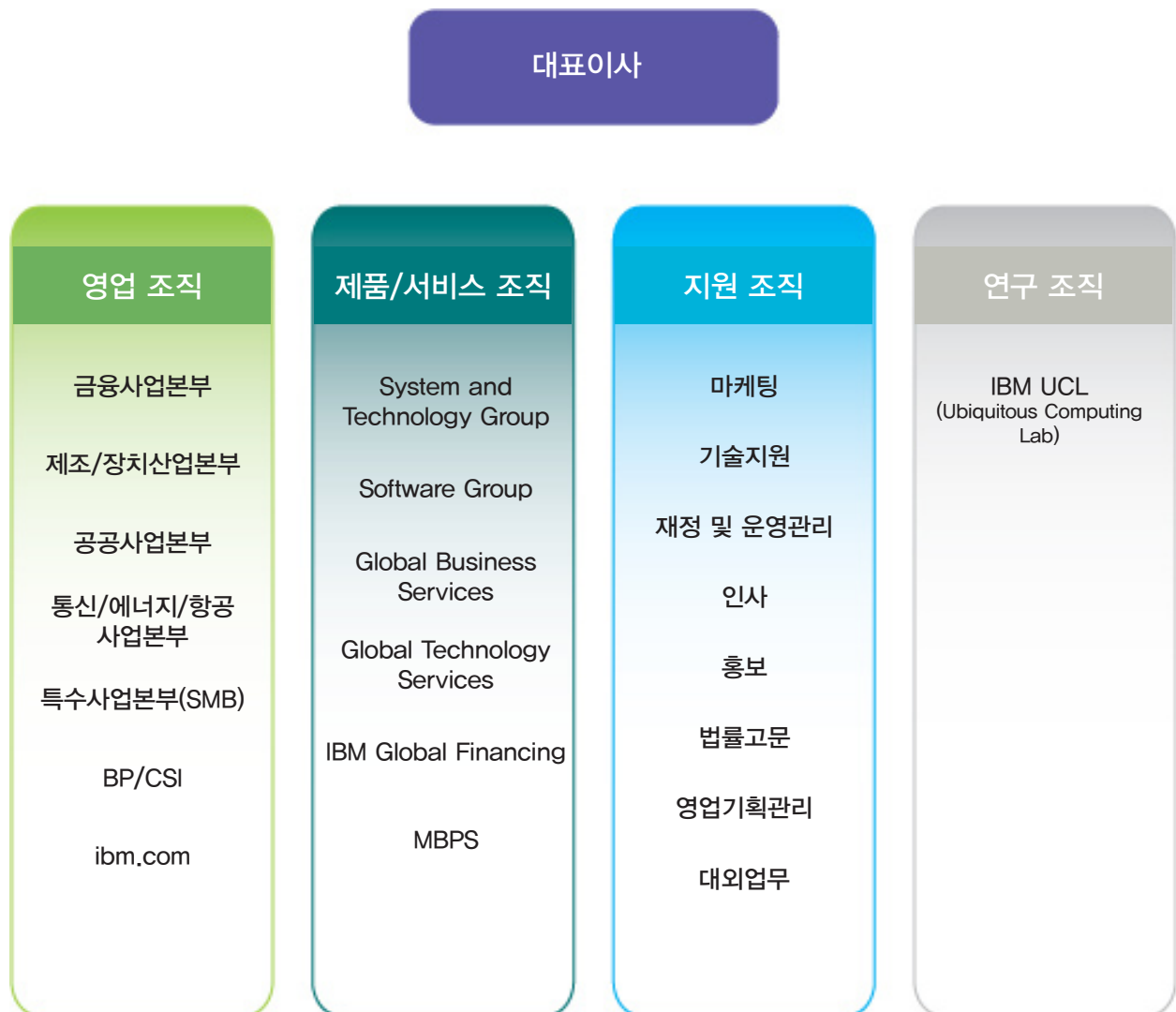
1-1. 일반 현황 > 개요



1-2. 일반 현황 > 글로벌 기업



2. 한국 IBM 조직



01 HR Human Resource



노순철

HR Learning
연세대학교 경영

01 부서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HR Learning팀에 있는 노순철입니다. 저희 부서는 신입사원들의 교육은 물론이고 경력사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실제 수행하고 차후의 Feedback까지 관할하는 팀입니다. 다양한 Pillar의 교육을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다가 가끔은 부서에서 직접 교육을 하기도 하므로, 팀 내 부서원들은 모두 다른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웃부서로 노사관리, 보상, 채용 팀 등이 있고 각각 인사관리의 세부 분야에 있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부서의 Leader 이신 임광수 전무님은 이 모든 인사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02 인턴 생활

제 인턴생활은 매우 즐겁습니다. 인턴기장으로서 인턴들 사이에 Network향상을 위해 소통하고 모임을 조직하며, 그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은 매우 큼니다. 보람도 있고요. IBM은 인턴 프로그램이 매우 체계적이고 잘 되어 있어 인턴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한 인턴들끼리도 서로 도우며 친목도모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IBM인턴을 통해서 실무를 접하고 교육을 받는 것 이외에도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서 IBM 인턴의 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서업무도 상당히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저는 신입사원교육을 같이 동행해서 참관하고 교육지원을 합니다. 신입사원만 받는 IBM만의 프리미엄 교육을 같이 듣는 거죠. 신입사원이 아니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그리고 신입사원들도 알 수 없는 교육 준비 과정에 대해서 HR 인턴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이러한 교육자료들을 팀 룸에 구축하는 일을 합니다. 신입사원들이 받는 교육프로세스는 생각한 것 보다 굉장히 방대하며 그 안에 속한 자료나 교안의 양도 엄청납니다. 이 모든 것을 pillar별로 나누어 팀 룸에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서 관리가 된다면 나중에 learning팀의 교육 프로세스가 훨씬 수월해 지겠죠?

셋째는 IBM의 교육프로세스에 제언을 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회사의 신입사원교육과 비교함으로써 좀더 나은 프로세스를 위한 point를 도출해 내는 거죠. 요건 아직 시작을 못해서 막막합니다만, 재미 있을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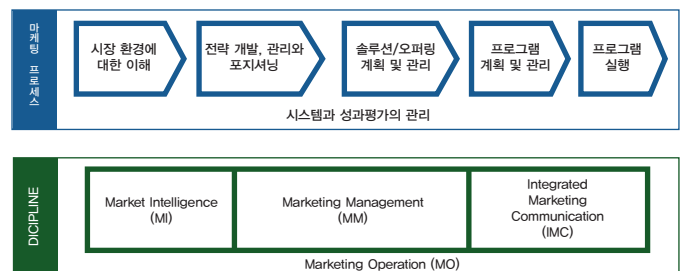
이제 인턴 생활도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운 인턴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알고 도전하여 경험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02 MKTG Marketing Operation



정보라

Marketing Operation
경희대학교 영어



01 부서 소개

한국IBM 마케팅 조직은 크게 MI, MM, IMC, MO로 이루어져 있다. 시장 환경에 대해서 MI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MM부서에서 전략을 세우고 솔루션을 제공하며 그 솔루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계획한 프로그램을 IMC부서에서는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된다. 또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연결하고 관리하는 MO 부서가 있다. 그리고 한국IBM은 매트릭스 조직을 기본 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마케팅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MM부서 중에서는 부서별로 STG, SWG, GTS, GBS, Channel, GB, Contr & IND, ibm.com 마케팅 부와 같은 부서들이 있다.

02 인턴 생활

평소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해 보고 싶었던 나는 IBM인턴 추천 공고를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다. 경영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도 많이 했다. 하지만 IBM은 나를 선택해 주었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시작된 인턴생활. 나는 Marketing Operation(MO)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해보고 싶었던 나는 멘토님의 많은 가르침과 배려로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나 이번 인턴기간에는 연중 행사 중 큰 행사들이 많아서 내가 담당하는 일들이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생각에 일을 하면서도 뿌듯했다. 참여한 행사로는 크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는 Korea MKTG Kick-off Session과 미국에서 브루스 헤럴드 수석 부사장님의 방문을 들 수 있겠다. 그와 관련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일정을 돕는 등의 일을 하였는데, 세션 때 마케팅 부 상무님께서 내가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며 좋은 말씀 해주셨을 때, 그리고 IBM 본부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하고 계신 부사장님을 직접 뵈고 미팅의 참석하여 스피치를 듣고 사진을 찍을 때, 그 때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끔은 일정에 쫓기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은 MO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멘토님을 만나 볼 수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한다. 또한 MO에서는 직원들의 커리어 역량개발에도 힘쓰고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으로 MO가 주체가 되어 마케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 시작단계라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교육 자료들과 관련하여 일을 하면서 부족했던 마케팅 기본 지식 부분에 대해서도 인턴기간 동안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IBM 인턴 활동은 실제로 그 부서의 업무가 나와 맞는지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내가 사회에서 멋지게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자신감 또한 주었다. 이번 IBM 인턴십은 나의 꿈과 목표, 그리고 멋진 동료들을 얻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03 SALES & SALES OPERATION



유지송

Public Sector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01 부서 소개

IBM 의 Sales은 보통의 다른 회사들의 영업 활동과 다릅니다. IBM의 영업 활동은 BM이 가지고 있는 자산(H/W, S/W)에 비즈니스 및 IT 통찰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BM의 sales 파트는 크게 산업 영역/ 솔루션 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매트릭스 조직으로 구성되어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 영역은 고객사의 비즈니스 행위를 하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크게 금융산업본부, 제조/장치산업본부, 통신/에너지/항공산업본부, 공공사업본부, 특수사업본부(Small and Medium business)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02 인턴 생활

저는 현재 IBM의 영업 조직 중에서 Public Sector(공공사업부분)에 소속되어서 두 달간의 인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국내 정부기관의 Market Survey와 설문지 항목 개발 그리고 해외 전자 정부 선진 사례 수집 및 번역과 고객 배포 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Public Sector의 Seller들 영업 활동을 위한 Sales operation(영업 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부서업무의 경우 스스로 일을 추진하되 중간중간 Mentor와 담당 직원 분들께 조율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턴들의 Workload는 조직마다 부서마다 상이해서 딱 잘라서 말씀 드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간혹 OT(야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크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서 업무 이외에도 다른 인턴사원들과 함께 대학생들을 위한 on-line 홍보 방안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인턴 생활을 통해 경력 개발의 측면에서 큰 성장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인턴이라는 기회를 통해 관심 있는 회사와 직무, 관련 Industry를 미리 탐색해보는 유익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IT Industry 쪽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런 도정에 IBM에서 인턴 생활을 통해 Career 설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이야말로 대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IT Industry 혹은 외국계 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저 없이 IBM 인턴십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Career 측면에서, 개인의 Vision 측면에서, 또한 사람들 측면에서 “IBM 인턴십” 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4 SALES & SALES OPERATION



남효주

Financial Service Sector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01 인턴 생활

저는 현재 영업분야에서 여러 산업 군 중 Financial Service Sector에 소속되어 영업 및 마케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문학도인 내가 IT 업체에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서분들과 멘토의 도움으로 잘 적응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저의 멘토께서는 서슴지 않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부서에서 따로 저에게 부여된 프로젝트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서 업무 이외에, 인턴들끼리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팀의 Project Manager를 맡고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매력적인 5명의 조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넘어서 돈독한 우정까지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IBM 인턴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진정한 Global Company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턴 생활 동안, 약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신 샘 팔미사노 IBM 회장님을 비롯해 브루스 헤럴드 마케팅 부사장님 등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계시는 다양한 IBMer를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IBM만의 자유롭고 수평적 분위기는 저로 하여금 향후 IBM에 입사하고 싶은 욕심을 더욱 부추겨 주었습니다.

향후 더욱 많은 대학생 여러분들이 IBM 인턴십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익히며 미래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5 GTS Global Technology Service



김태현

GTS ITD Site & Facilities
한양대학교 산업공학

01 부서 소개

조직: GTS는 IT서비스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ITD, IT인프라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를 도와주는 MTS등의 많은 부서로 나뉩니다. 제가 소속된 ITD 내에는 유닉스, 미들웨어, DB 등 많은 팀이 있는데, 저는 Site&Facilities 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하는 일: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업무를 위해선 서버 등의 전산시스템이 필수요소인데, 이들 시스템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공간인 “전산센터” 신축, 이전, 통합 등이 저희 업무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건물부터 시작해서, 소방시설, 보안시설, 냉각시설 등을 설계해주죠. 이러한 업무 특성상 IT지식뿐만 아니라 건축지식 등 많은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며,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는 건설회사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엔지니어링이라기 보단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죠.

02 인턴 생활

타 회사 인턴합격도 포기하고 선택한 IBM인턴인 만큼, 저의 기대감은 컸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서 배치 받고, 하는 일을 설명 듣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인턴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열심히 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접한 부서 업무는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이쪽 분야의 일이 워낙 큰 프로젝트이고,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요즘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 막바지 상황이라, 팀원 분들께서는 매우 바쁘셨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저에게 맡기실 리는 만무하니 처음에는 제가 이 곳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면서 조금씩 일의 보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특성 상 본사인 도곡동에서 떨어져 고객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턴으로서 회사가 아닌 고객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가끔은 외롭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활도 차츰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IBM의 GTS 많은 부서 분들은 도곡동 사무실보다 고객사에 나가계시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턴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인턴 팀 프로젝트가 있어 도곡동에도 많이 가는 편입니다. 현재 DB2관련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주기적으로 팀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다들 열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가 매우 기대됩니다. 어느덧 인턴기간의 막바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IBM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무사히 인턴을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인턴동기 모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IBM에서 다시 만나면 더욱 좋겠지요.

06 **GBS** Global Business Service



오병찬

GBS AI-EA&T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

01 부서 소개

GBS는 다양한 업계에 걸친 폭넓은 지식을 통해 전체 고객 가치 체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BS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참신하고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 새롭고 혁신적인 해결책, 신속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GBS는 매트릭스 형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업 영역 / 솔루션 별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영역: 금융, 유통, 제조, 통신, 공공/교육/보건의료

솔루션: 전략/변화관리, 재무관리, 공급망관리, 고객관계관리, 인적자원관리, 애플리케이션 혁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비전: 저희가 없으면 센터도 없고 서버도 없고 IT서비스도 없는 것이죠. 사람의 인체로 비유를 하자면,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가 있어야 위에 근육, 피부 등이 붙어있을 수 있겠죠.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은 기업 규모의 확대에 노후 된 전산센터의 신축, 통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SI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전력, 저발열, 저탄소 배출 등의 환경친화개념과 함께 친환경사업의 한 분야로서도 매우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02 인턴 생활

GBS는 고객이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점들을 최일선에서 같이 고민하고 IBM만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 사고와 능력, 풍부한 전문적 기술, 실질적 경험 등을 적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주 업무인 부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컨설팅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저는 GBS AI-EA&T에 소속되어 국민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는 일은 일이라는 개념을 넘어 개인적으로도 무척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직접 옆에서 보고 체험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고객의 현 상황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개선된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팀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IBM만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턴이라는 신분과 좁은 시야를 통해 접하는 IBM의 업무 문화이지만, 이런 회사라면 분명히 직원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Internship Programs & Jobs at IBM

인턴십 프로그램 및 공채 정보

1 IBM 인재상

한국IBM이 원하는 인재상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리더로 성장하여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이끌어 나갈 인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BM이 가진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급변하는 산업 환경, 경영 환경 등에 대응하여 향후 전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길러내는 것이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IBM에서는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인턴 채용 정보 (2008 동계 인턴 기준)



1. 지원자격

- 대학 4학년 이상 재학 예정 및 대학원 재학생 (2008년 3월 기준)
- 학점은 평균학점 B0 이상
- TOEIC 점수 800점 이상
- 전공 제한 없음

2. 모집요강

대학의 취업정보실장, 경력개발센터 원장을 통한 추천방식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IBM 적성검사 (영어로 문제 출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차: 각 부서별 면접 (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함)

4. 인턴기간

2008년 1월 7일(월)부터 2월 29일(금) (8주)

5. 인턴업무 분야 (인턴 부서 배치는 Business 요청에 의해 배치됨)

-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 (GTS)
-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GBS)
- 비즈니스 아웃소싱
- 영업 및 영업지원
- 마케팅
- 인사부지원
- 회계업무지원
- 연구소

6. 특전

- 8주간 200백만원 지급
- 인턴기간 중 우수자는 정식 채용 전형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3 공개 채용 정보 (2008 신입사원 채용 공고)

1.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 분야	인원	업무 및 자격요건
영업/영업지원	OO 명	- 산업별 총괄 영업 - IBM 제품 (H/W, S/W) 별 영업 - 채널 영업 - IBM 제품 기술 영업/지원 - 영업 기획 관리
서비스 세일즈 Global Technology Services-IT Sales	O 명	- IT 서비스 영업 (브랜드별) - 데이터센터 구축 서비스 (건축기사 자격증, 전기 및 기계 전공 선호)
서비스 수행 Global Technology Services-IT Delivery	OO 명	- IT 인프라스트럭처 (H/W 및 S/W) 구현 - IT 서비스 및 프로젝트 수행서버 서비스 : Mainframe, Linux, Windows NT - UNIX 기반의 서비스 - 미들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기반 서비스 - 보안서비스 - 네트워크 서비스 - 스토리지 서비스 - 재해 복구 서비스 - 컨트롤 센터 서비스 - 엔드유저(고객 사용자) 서비스 - 자산관리 서비스 - IT인프라 아웃소싱 서비스
서비스 지원 Global Technology Services-Maintenance & Technology Support	OO 명	- IT 인프라스트럭처 (H/W 및 S/W)의 운영 지원 / 유지 보수 서비스
비즈니스 아웃소싱 Managed Business Process Services	O 명	- 업무 Transformation (재무, 인사, 교육 및 고객 관리 등)을 근간으로 한 위탁 운영 서비스 - Business Admin / MIS Computer Science 선호
연구소 KSSL :Korea Software Solutions Lab	O 명	- HiPODS (High Perform On Demand Solutions) Center - Global Banking Center of Excellence - SOA Competency Center -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석사 학위 이상 선호

2. 지원 자격

-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08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전공 제한 없음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가 보호 대상자, 장애우는 서류 전형 및 필기 시험에서 가점 혜택

3. 전형 절차 및 주요 일정

원서 접수: 2007년 10월 1일 (월) 09:00 ~ 10월 14일 (월) 18:00
 적성 검사: 2007년 11월 4일 (일) (10월말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면접 전형: 11월 중순 (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입사: 2008년 1월 1일

4. 지원 방법

- 한국 IBM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 (방문/우편 접수 불가)
- 각 단계별 전형 결과는 접수된 개인 이메일로 통보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출 서류

분류	제출서류	제출시기
공통	졸업(예정) 증명서 성적 증명서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면접시 안내자에게 제출 (면접 대상자에 해당)
해당자	취업 보호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 사본	필기 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4 인사부 김태성 차장님 인터뷰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 1위, IBM. 하지만 인턴 및 공채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HR의 김태성 차장님을 만나 IBMer가 되는 과정에 대해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았다.

인턴 관련

1. 왜 IBM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궁극적으로는 채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죠. HR에 근무하다 보면 우수인력 확보가 얼마나 힘든지 절감하게 됩니다. 이에 인턴 제도를 통하여 인재의 됴됨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구직을 원하는 여러분들께는 회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더불어 IBM의 인턴십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각자의 대학으로 돌아가 IBM에 대해 알리는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희 HR에서도 인턴십을 거친 학생들이 'IBM 인턴을 했으면 좋은 인재겠군' 하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2. IBM 인턴은 추천 중심인데, 추천 대상 학교 선정 기준과 공개 인턴 채용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IBM이 인턴제도를 시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부분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인턴십 추천 학교 선정은, 현재 IBMer들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IBM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출신학교를 분석해 추천서를 배부하는 형식입니다. HR부서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채로 진행 시 모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기가 힘들어서 추천제도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공개 인턴 채용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인턴십 제도를 공채로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인턴십을 통하여 공채까지 이어지는 채용 프로세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인턴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우수인력 확보가 목적이라면 인턴제도와 공채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지금까지 인턴과 공채가 각각 나뉘어서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연관 지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지난 인턴들은 보지 않았던 적성검사를 올 2008년 동계인턴 선발과정에 도입 하였습니다. 인턴제도를 수료한 분들은 하반기 공채 전형 시, 적성검사 시험은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정해졌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HR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인턴 채용인원과 채용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턴 채용 공고 전, 각 부서마다 필요한 인원을 인사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사부는 채용인원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1차 서류 심사와 적성 검사를 인사부에서 진행합니다. 여기서 선발된 인원을 다시 각 부서로 전달되어 각 부서에서 면접 대상자 및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합니다. 채용기준은,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재상에 맞게 선발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원 시 자신이 어떤 부서에 적합한지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가 영업 부서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지요.

5. 인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선 인턴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인턴의 장점은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턴 여러분들께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직원들은 결과물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인턴에게는 그러한 책임을 지우지는 않으니까요.(웃음) 고로,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마음껏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다 배우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부서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필요한 업무를 습득해야 할 것입니다. IBM은 자신이 노력하고 찾는 만큼 무한히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공채 관련

1. 공채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공채는 일년에 한 번 실시되고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전략을 짜기 시작하여 9월초에 캠퍼스 리크루팅이 진행되고 10월 초에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우선 서류 전형은 철저히 자기 소개서와 경험에서 습득한 바를 중심으로 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 전형에는 사진이나 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IBM은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40%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 지원자가 약 20%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 바로 IBM이기도 하지요.

서류 전형이 끝나면 필기시험(적성검사)과정이 있습니다. 적성 검사는 영어로 출제되고 절대 평가입니다. 시험에 통과하신 분들은 총 2차례에 걸친 면접 전형이 진행됩니다. 매년 시험 유형이 달라지지만, 작년을 예로 말씀 드리면 개별, 그룹, 영어의 3가지 면접이 있었습니다.

2. IBM은 어떤 인재를 선호하나요?

기본 역량과 직무 역량이 있다면, IBM은 기본 역량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인재를 선발합니다. 기본 역량만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IBM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IBM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은 무관합니다. 또한 특정 학교에 대해 주는 특혜는 결단코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자기 소개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IBM이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영어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BM은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보다는 의사소통능력을 더 중시합니다.

3. 공채를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선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부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성향을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부서의 장이라면 어떤 인재를 뽑고 싶은 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4. 급여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실력을 발휘하는 만큼 급여는 달라집니다. 급여는 worldwide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IBM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IBM은 연봉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가장 곤란한 질문입니다. 개개인의 연봉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은 얼마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업 사원이 사장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IBM에 대해서

IBM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히 기회를 주는 회사입니다. 저 역시 5번 부서이동을 했고, 지금 HR, 인사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직장이나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많은 기회들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면 IBM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IBM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IBM은 기름진 토양이다!

: 사람을 씨앗으로 본다면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토양이지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질 나쁜 곳에 떨어진다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IBM은 좋은 씨앗이 더욱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름진 토양과 같은 곳입니다.



김태성 차장님께서서는, 조금은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스스럼없이 답변을 해주셨다. 특히, 인턴들은 내 자식들과 같으며 인턴들에 대한 깊은 애정도 표현해 주셨다. 현재 김태성 차장님은 인턴직원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계시기도 하다. 기름진 토양에서 기름진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차장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IBM 인턴 선배들의 이야기



유효종

3기 IBM 인턴 – zStack Business
 IBM zStack Business 입사
 경희대학교 국제경영

2007 IBM Summer Internship이 나에게 준 의미

1. IBM ?

2007년 5월, 난 IBM Internship 원서를 넣는 그 순간에도 IBM이 어떤 회사다라는 명확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냥 어릴 때부터 내가 즐겁게 만져오던 컴퓨터란 것의 시작을 하였던 회사이고, 또 그쪽 분야로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뿐이었다. 4학년의 여름방학 두 달을 IBM에서 보내기로 결정이 된 후부터 나는 관심을 가지고 IBM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2. 끝을 알 수 없는 회사

책들과 신문기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하면서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 IBM 이란 회사는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해답뿐이었다. 스스로 계속 변해왔고, 세상에 많은 변화를 주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변하고 있는 회사라는 부분이 내가 밖에서 바라보는 IBM에 대한 생각이었다.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7월 2일에 IBM에 인턴생활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3. 두 달 동안의 많은 일들

두 달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크게 두 가지를 느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첫 번째, 우선 외부에서 내가 바라보던 시각이 아닌 IBM의 내부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IBM이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전은 어떠한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글로벌 기업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IBM이 그리는 혁신적인 방향의 비전들은 대학을 갓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고, IBM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위한 수많은 일들은 내게 알 수 없는 뿌듯함까지 주었다.

두 번째, IBM만이 가지고 있는 기업문화를 작게나마 옆에서 보고 느끼면서 참 일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이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일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 되었다. IBM의 기업문화 그 자체가 직원들에게 많은 책임을 지워주고 그에 맞는 자유 역시 보장 하면서, 그렇게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여러 부서에서 서로 같이 일하는 모습 역시 진정한 협업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었고 더욱이 좋은 mentor를 만나면서 두 달 동안 많은 것들에 대해 도움을 받고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두 달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가슴속에 IBM이라는 세 글자를 깊이 새기면서 돌아올 수 있었다.

4. 신입사원 공채 지원

두 달의 꿈 같은 기간을 보내고 돌아온 나는 이제 진짜 나의 직장을 준비하는 입장이 되었다. IBM의 두 달간의 인턴기간은 소위 말하는 나의 ‘스펙’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주변에서 좋은 회사에 원서 지원을 한창 하고 있을 때에도 난 IBM만을 가졌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9월을 보내고 10월에 IBM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었다. 악명 높은 IBM의 어려운 필기시험을 거쳐서 결국 면접까지 가게 되었고, 개인면접과 그룹면접 그리고 영어 면접의 세 단계의 면접이 있었다. 개인 면접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내가 두 달 동안의 인턴기간을 거치면서 IBM에 대해서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IBM에 대해서 가진 욕심 등을 당당하게 면접관들에게 이야기 했다. 그룹 면접의 주제 역시 일반적인 주제였지만 IBM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에 관해서 면접관들에게 이야기 했다. 이런 부분을 높게 평가 하셨는지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 난 2008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5. IBM 인턴 ?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처럼 짧은 두 달 동안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고 배웠던 나는 꼭 이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IBM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주변에서 누군가 IBM 인턴이 어떠냐고 물으면 난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줄 좋은 기회, 그리고 IBMer로써 한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 바로 도전하라고.



김태호

2기 IBM 인턴 - SWG
 산업은행 입사
 성균관대학교 경영

저는 2007년 1월부터 2월 동안 한국IBM SWG의 Information Management Team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비록 2달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IBM에서의 인턴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많은 선물을 주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커리어적 측면에서 저의 진로와 진정 원하는 분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곡동에서 저와 함께 했던 인턴 동기들 역시 IBM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근무하면서 두 번의 엠티를 비롯하여 수많은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졌던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스스로 자극이 되었고 인턴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만남을 지속하며 제게 있어 둘도 없이 소중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인턴 근무 경험은 분명 누구에게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의 크기는 각자가 생각하고 목표하고 이루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BM에서의 인턴은 제가 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선물이 되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값진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인턴 생활 엿보기



1	2
3	4
6	7

- ① 2008 동계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 ② 인턴 MT
- ③ 한국 IBM 본사
- ④ 한국 IBM 글로벌 라운지
- ⑤ 2008 동계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 ⑥ 2008 동계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 ⑦ Blue Notes 공연

IBM은 OO다!

김태현	IBM은 트랜스포머다!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항상 변신하므로!)
노순철	IBM은 정말 파란색이다! (젊은 기업문화, 이성적 개인역량실력주의 문화, 누구나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
정상운	IBM은 혼혈계 기업이다! (외국계 기업이지만 50년 이상 한국에 뿌리를 내리면서 코리안 타임을 준수하고 알코올 세션을 적절히 지키는 등 한국적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최소라	IBM은 IT를 선도하는 회사이다!
윤정은	IBM은 Innovation을 추구하는 GIЕ이다!
김한길	IBM은 Identify Business Methodology!
문정연	IBM은 이미 버린 몸이다!
이은정	IBM은 무한도전 이다!
이석철	IBM은 까칠하다! (기업 설명회나 홍보, 리쿠르팅 이런 부분이 다른 회사에 비해 너무 적은 거 같다)
최재호	IBM은 leader를 lead하는 기업이다! (혁신을 통해 세상의 trend를 먼저 바꾸어 나가므로)
안성욱	IBM은 변덕쟁이다! (요것 저것 좋은 걸로 자꾸 바꾸자나!)
유동규	IBM은 완벽주의 기업이다! (기업 자체의 운영뿐 아니라, 직원 개개인으로서도 사회적/경제적/도덕적 등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기업 같다.)
송성일	IBM은 (세 글자)약어 세상이다! (뭐 그렇게 약어들이 많은지 -_-ㅋ 특히 세 글자 약어들; 하긴... 회사이름도 약어니까;;ㅋ)
안선주	IBM은 국내 IT 솔루션 업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 이다!
신은정	IBM은 아이디어 뱅크다!
정보라	IBM은 춤추는 코끼리다! (IBM은 코끼리와 같이 거대한 기업이지만, 상황에 맞게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에)

에디터 소개



Newsletter Manager

정보라 (BR)

MKTG Operation

“이 뉴스레터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Interns, Be Mbitious (인턴십 뉴스레터)가 많은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게 만드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Online Ad Manager

유지송 (GS)

Sales (PUBS)



Project Manager

남효주 (HJ)

Sales (FSS)



UCC Manager

박슬기 (SK)

Rational SWG MKTG



Blog Manager

이수현 (SH)

zStack Business